

그녀를 기억하며 독립영화 펀드 만든다

광주출신 故 신은정 감독 1주기

미국인 남편·지인들 운영... '정의·평화' 주제 작품 지원

홈페이지 오픈·추모문집 출간... 내일 전남대서 추모행사

‘혁명적 활동가인 동시에 작가가 영화감독, 가장 절친한 친구, 사랑하는 연인.’

남편 조지 카치아피카스(웬트워스 공과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내 신은정 감독을 그렇게 기억했다. 지난 2001년 첫 만남에서 ‘양키 고 홈’이라 외쳤던 그녀는 2004년 그의 사상적 동지이자, 반려자가 됐다. 이후 미국 보스턴과 한국을 오가며 두 사람은 사회학자로, 다큐 감독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특히 신감독은 하버드 대학의 이면을 파헤친 ‘베리타스’로 뉴욕국제제작영화제 다큐 베스트 감독상을 수상하고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 베리타스’(시대의 창)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터라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전남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방송작가, 인권영화제 기획자 등으로 활동했던 신은정 감독이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됐다. 그녀는 곁에 없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독립영화를 통해 세상을 향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던 신감독을 기억하는 의미있는 행보가 시작된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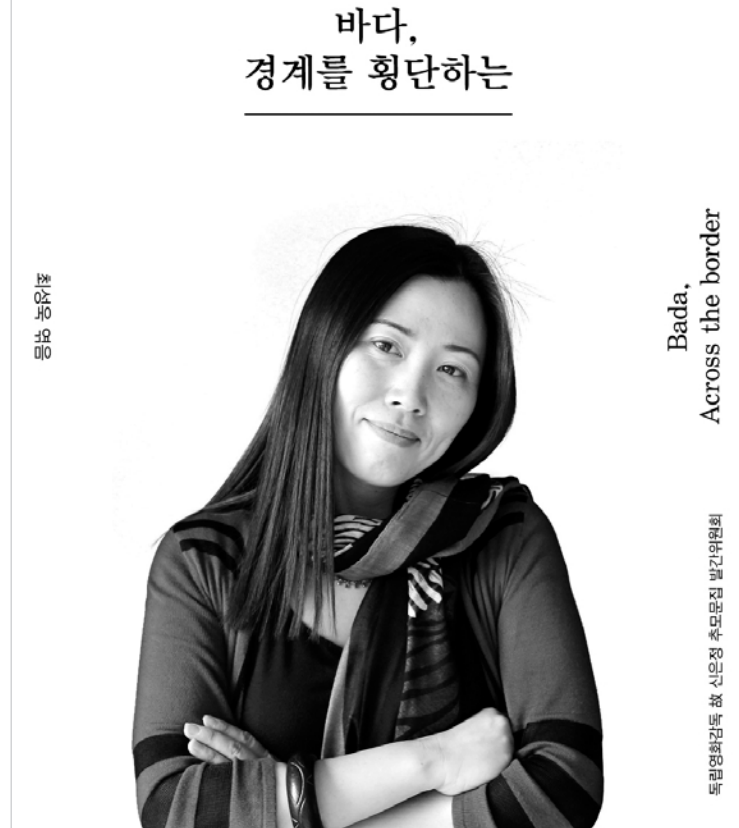
한국 지인들은 신감독의 뜻을 기리고 활발한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다큐감독 신은정 독립영화 제작 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정의와 평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수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주제로 제작되는 독립영화가 지원대상이며 매년 펀드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지원작품과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펀드에 기금을 출연해줄 뜻있는 이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또 조만간 신감독의 홈페이지(www.enjung-veritas.com)도 오픈한다. 그녀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녀가 남긴 글과 사진, 다큐멘터리 ‘베리타스’ ‘광주항쟁의 유산’을 비롯한 영상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녀의 페이스북과 미국 유가족이 제작해 운영중인 웹사이트(http://veritasthefilm.com)와도 연계해 추모글을 올리고, 신감독의 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감독을 기억하는 추모 문집 ‘바다, 경계를 횡단하는’도 나왔다. 평소 ‘바다’라는 애칭으로 불렸었고 미국과 한국,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을 횡단하며 언제나 ‘진실’을

바다, 경계를 횡단하는



신은정 감독 1주기를 맞아 발간된 추모문집 표지.

추구했던 그녀를 기억하며 문집 이름을 정했다.

신감독과 함께 ‘베리타스’를 제작했던 최성욱 작가가 책임을 맡은 이번 문집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모두 800부를 제작했다. 350페이지에 달하는 문집에는 생전 그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과 추도사, 신은정 감독의 글, 친구·미국과 한국의 가족 등 한국과 미국 지인들의 글, 언론 보도 등이 실렸다.

‘베리타스’의 인터뷰 대상자였던 빅터 윌리스는 “나에게 바다는 용기, 진실함, 통찰력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을 상징한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지인들은 그를 ‘사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 깊었던 언니’ ‘유쾌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 적었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전남대 사회대 앞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역새,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농진청, ‘거대갈대’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스템 무안에 구축

자동차에 쓰이는 바이오에탄올을 역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안에 구축됐다. 농촌진흥청은 24일 “무안 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 일반역새보다 2배 이상 큰 ‘거대역새 1호’ 재배단지 구축하고, 역새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무안 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4m까지 크는 거대역새 1호는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달리 비식용 에너지작물로 농진청이 2009년 바이오에너지용으로 개발했으며 최근 148ha 규모의 시범재배단지가 구축됐다. 재배단지에서 내년말부터 생산되는 역새는 3000~4000t 정도로 수확된 역새는 ‘분쇄→전처리→당화→증류·탈수’ 과정을 갖춘 시범공장에서 바이오에탄올로 변신하게 된다.

시범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되는 바이오에탄올은 연간 60만~80만ℓ로 금액으로는 16억원어치에 달할 전망이다. 농진청은 현재 100kg의 역새에서 약 15ℓ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면 역새 1t당 200ℓ 이상의 에탄올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일 조선대학교에서 개막한 ‘2013카잔U대회 디브리핑(Debriefing) 회의’에서 김윤석 광주U대회사무총장(맨 왼쪽)이 에릭 샤프트론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과 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U대회조직위 제공>

광주U대회 성공위해 노하우 전수

조직위-FISU 공동 ‘카잔U대회 디브리핑 회의’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카잔U대회 디브리핑(Debriefing) 회의’가 24일 조선대 서석홀에서 열렸다. 디브리핑 회의는 유니버시아드를 주최하는 FISU의 지식승계프로그램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및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대회에 전수하는 공식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광주U대회 직전에 열렸던 카잔U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요 국장과 함께, 광주에 이어 2017년 대회를 준

비하는 대만의 타이베이대회 조직위원 등 20여 명의 U대회조직위원이 참석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조선대에서 진행되는 디브리핑 회의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의 핵심분야인 수송, 의무도움, 자원봉사, 경기운영 및 경기장 등 15개 주제에 대해 조직위 전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대회에 식전수가 이루어진다. 김윤석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앞선 카잔대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회였다”며 “이

번 디브리핑회의를 통해 카잔조직위의 운영경험을 광주조직위에 전수, 2015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계속된 분과별 회의는 재정운영, 보험, 케이터링, 등록인증, 자원봉사 등 8개 분야에 대해 카잔조직위가 설명을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광주조직위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디브리핑회의 둘째 날인 25일에는 숙박과 개·폐막식, 입·출국 등 나머지 7개 분야에 대한 지식전수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시아무용단 창단... 2015년 문화전당 개관 공연

추진단, 이달말 14개국 무용수·전문가 참여 워크숍

오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기획 ‘아시아 무용단’이 창단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무용가들로 구성된 아시아 무용단을 창단, 문화전당 개관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오는 31일 국립현대무용단 연습실에서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4개국의 무

용수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창단공연 연습 및 워크숍을 연다. 창단작품은 이스라엘 안무가 이디트 헤르만의 작품 ‘강(The River)’으로, 고대 부어 건축신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공연물이다. 무용단 창단을 위한 워크숍에는 안예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을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와 무용수가 참여해 연습에 들어간다. 공연은 2015년 9월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면 ‘독감예방접종’서 계속

여기에 구청별로 평균 일주일씩 1~4곳의 장소를 정해 집단 접종을 하다가 하루 최대 1000명이 넘는 접종자가 몰리면서 긴 대기시간은 기본이고, 예진과 사후 관리 등도 소홀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은 무료 접종을 꺼리고 있다. 올해 접종일을 몰라 무료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김모(72·광산구 우산동)씨는 “옆에서 하는 말도 잘 안 들리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하겠느냐”면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현재 5개 구청 중 가장 낮은 접종률(49%)을 보인 광산구의

이현숙 예방접종 담당은 “현 홍보방법으로 접종률 목표인 50%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개별통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자유롭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2개 시·군은 올해 32억8400만원 들여 59만여명에게 독감접종을 계획이다. 65세 이상(36만6000명) 노인인구 인산부 등 대상자 100% 접종이 목표다. 지난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 보건소 등에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22개 시·군의 무료독감 접종률은 58%다.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술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t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무시험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국비 지원 교육생 모집 | 실업자·재직자 계좌제 훈련(주·야간반)

100만원 (일 반) → 30만원 (계좌제)

(계좌제 관련 석찬순 40명 / 상담을 통한 전액 국비 지원가능)
※교육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연령, 학력 제한 없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0월 31일(목) 개강 주·야간 수시 모집중!

광주장례지도사 교육원 ☎ 062.223.7844 H. 010.9300.8245
광주시 북구 중흥동 683-14 (광주역에서 롯데백화점 가는길 500m 좌측)